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창립

공동위원장에 김영록 지사 등 3명
내년 2월 출범... '시민주도형'으로
같은 국제행사 두번 국내 첫 도시



지난 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허석 순천시장, 조직위원들이 박람회 엠블럼 및 주제어 선포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지난 4일 세계적인 정원축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나섰다.

조직위원회는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자원 조달·집행 등 앞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 취지문과 정관, 사업계획, 임원(위원장, 이사 등) 선임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책무를 담당할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추대됐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과 최일 동신대 총장, 황금영 전남사회단체연합회장은 부위원장으로, 최인기 허삼만 전 장관, 허경만 전 지사, 송영수 전 2013 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은 고문으로 선임됐다.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허석 순천시장이 공동의사장을 맡고, 최병암 산림청 차장과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김병원 전 농업중앙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창립총회에 이어 2023정원박람회의 방향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엠블럼(EI)과 주제어 '정원에 삽니다', 부주제어 '나만의 정원'을 공식 선포했다. 시민 참여로 채택된 주제어와 엠블럼은 앞으로 박람회 홍보 및 마케팅, 수익·취급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올해 안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2월부터 사무처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사무처는 박람회 기틀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박람회조직 조성 공사 착공, 국내외 참여정원

유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로 국내에 정원문화와 산업을 도입할 수 있었고 오는 2023 정원박람회는 전남과 순천이 세계 정원문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국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의 도심 확대이며 시민주도의 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며 "정원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나아가 순천이 정원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린뉴딜의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1월 전남도와 순천시의 공동개최 업무협약 이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 개최 승인에 이어 7월 정부 국제행사 승인까지 이어져 국민의 정원박람회 개최 염원을 실현했다.

/윤현석 기자 chadai@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국비 확보 사활 걸어라" 보성군, 매뉴얼 제작 배포



보성군은 국비 신청과 정부 예산 심의 과정 등이 담긴 '국비확보 활동 매뉴얼집' (사진)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활동집에는 내년도 보성군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목록을 실어 직원들이 지역 신규 사업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과 국비 확보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특히 국가 예산 흐름과 국비 확보 핵심 전략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논리적인 사업 추진으로 정부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절차상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성군은 기대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 직원이 국비 확보 매뉴얼을 숙지해 사업 추진과 정부예산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가시화

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2억원 확보

광양시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담당할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광양만권에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추진해왔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국회 예산소위 위원인 서동용 의원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설득한 끝에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여수와 순천, 진주, 사천 등 9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연

수원 유치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과 일반산업단지에는 10만명이 넘는 노동자와 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연수시설이 없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중소기업연수원이 건립되면 철강, 석

유화학, 우주항공, 방위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산업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은 전국에 7곳이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이다.

정 시장은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전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맞춤형 특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기차마을휴게소 음식점, 위생 '매우 우수'

곡성군은 기차마을 휴게소 내 음식점 전체가 최고 위생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을 지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곡성지역에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과 천안 방향에 휴게소 2곳이 운영되고 있다.

곡성군은 이들 휴게소 내 14개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 지정에 도왔다.

위생등급 지정은 받으려면 3개 분야 64개 항목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준비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한 탓에 음식점주들은 위생등급 지정을 기피하

는 편이다.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점주들도 탈락률이 높다. 곡성군은 전문컨설팅을 통해 점주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식재료와 조리도구, 시설 관리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점을 안내했다. 점주들도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수용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했다.

곡성에서는 휴게소 내 14개 음식점을 포함해 올해 총 22곳이 위생등급을 받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위생등급 지정으로 지역 휴게소가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